

지역 소식통

정읍시, 맞춤형 신제품 쌀

‘달하미’ 첫 모내기 실시

정읍시가 기상 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맞춤형 쌀 신제품 ‘달하미’가 최근, 고부면 용흥리 일원에서 첫 모내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재배 확대에 나섰다.

이번 모내기 행사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과 향토현농협 관계자, 지역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달하미는 국립식량과학원과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참여형 품종개발 사업을 통해 육성됐다.

올해 정읍시 품종 출원을 마쳤으며, 지역의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새롭게 다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에 발맞춰 시 농업기술센터는 현장 기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모내기 이후 시기별 생육 조사와 병해충 예방 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안정적인 수확을 돕는다. 또한 재배 단계를 조정하고 재배포를 운영해 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고, 안정적인 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경찰서,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 사전 차단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일 단속을 시작으로 휴가가 끝나는 8월 말까지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 고수면 문수계곡을 찾아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으나 더위를 해소하고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집중적으로 음주단속에 실시하게 됐다.

고창경찰서는 전광판·플래카드 등 비대면 매개체를 활용하여 음주운전 근절 홍보를 하고, 전단지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체류인구 전복 1위 달성

## 사계절 축제 등 관광자원 연계 전략 성과... 관광·생활 인구 동반 성장세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4분기 월평균 생활인구 36만 3921명, 체류인구 31만 5106명을 기록한 가운데 2025년 연간 월평균 체류인구가 29만 2141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찾아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지표로 지역의 실제 활력과 체류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군이 지난 2025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연간 월평균 체류인구는 29만 2141명으로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많았다.

연간 월평균 생활인구도 34만 1104

명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중 2위를 기록해 체류인구를 중심으로 한 생활인구 유입 기반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기별 월평균 체류인구는 1분기 22만 7655명에서 2분기 32만 7842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3분기 29만 7960명, 4분기 31만 5106명을 기록했다.

2분기와 3분기에는 체류인구 도내 인구감소지역 1위를 기록했고 4분기도 2위를 유지하며 연간 체류인구 1위 달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군이 보유한 자연경관과 사계절 관광자원, 지역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가 생활인구 유입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2분기에는 변산마실길 샤프스타데이지 개최와 부안마실축제, 3분기에는 여름 휴가철 관광 수요와 변산비치캠, 곰소정갈축제 등이 체류인구 확

대에 기여했다.

4분기에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에 3일간 총 12만 1000여 명이 방문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10월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8.5배로 202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월 7.7배, 8월 7.6배 등 주요 관광 시기에도 높은 체류배수를 기록해 체류형 관계인구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군은 이러한 체류인구 유입 성과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방문으로 연결하기 위해 부안사랑인 제도를 기반으로 한 체류·소비 연계형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봄·여름·가을에는 관내 소비와 부안사랑인 가맹점 이용을 유도하고 겨울철에는 관내 숙박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계절 체류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올해 우수 외식업소 20곳 선정

### 정읍 맛집 지정증 수여식... 상수도 요금 감면 등 혜택 지원

#### 대일정·내장산맷돌순두부·춘향골·다래원해물갈국수 등

정읍시가 엄격한 현장 평가를 거쳐 지역 대표 우수 외식업소 20곳을 선정하고 최근, 보건소에서 2026년 정읍 맛집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정읍 맛집’은 기존 일반음식점 15개소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대상을 넓혀 총 20개소로 확대됐다. 최종 명단은 서류 심사와 엄격한 비노출 현장 평가를 통해 확정됐다.

신규로 지원 신청한 11곳과 기존의 명성을 유지해 온 9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선정된 20개 업소 대표자에게 지정증을 전달했다. 이어 안전한 외식 환경을 위한 신규 사업을 안내했다. 고물가 시대를 맞은 외식업계의 현장 고충을 듣는 간담회 시간도 함께 가졌다. 맛집 인증 현판은 6월 중 각 업소 외벽에 개별적

으로 부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지정된 업소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상수도 요금 30% 감면 혜택을 시작으로 공식 누리소통망(SNS) 홍보, 홍보용 전단(리플릿) 제작,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사전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정읍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대일정, 내장산맷돌순두부, 춘향골, 다래원해물갈국수, 차미루, 신가네 정음국밥 본점, 아미알스 베이커리, 이화담, 명품한우정육식당, 청평식당, 호남한우관, 아양촌해물갈국수, 뒷골한우곰탕, 국화화관, 이브이 베이커리, 북돼지삼겹살, 금거북, 우리랑숯불갈비, 자랑식당, 녹원전통찜집 등 총 20곳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청년 창업농 정착 지원’ 2차 모집

###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정착금 지급·5억원 한도 창업자금 융자... 내달 10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금과 5억원 한도의 창업 자금을 융자하는 지원 사업 신청자를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금 지급은 물론 창업 자금 대출, 농업 교육을 함께 연계해 돕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시행 연도를 기준

으로 18세부터 39세(1986년~2008년 출생자)까지다. 농사 경험이 전혀 없거나 2023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로 처음 등록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게는 영농 경력(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3년 동안 매달 9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을 정착 지원금으로 준다. 아울러 영농 규모를 키울 수 있게 최대 5억원까지 정책 자금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실행 기한은 5년 이내다. 연 1.5%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처음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이후 10년에 걸쳐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는 상환 조건이어서 농가의 재정 부담을 크게 낮췄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농업인 안내 창구인 ‘농업e지(nongup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기존에 쓰던 농업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접수처가 바뀌었으므로 헛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서류 평가와 면접을 거쳐 오는 8월 10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농촌지원과 인력개발팀(063-539-6263)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퇴원환자 일상복귀 돕는 ‘단기집중서비스’ 큰 호응

고창군이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며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 복귀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순훈)이 거점수령기관으로 참여한다. 병원 퇴원 후 일시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

으로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연계 지원한다. 대상자에게는 1개월 동안 가사 지원, 영양 지원, 이동 동행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단기·집중 제공한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 A씨는 “갑작스러운 수술 후 퇴원해막막했는데,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식사 준비와 가사를 도와주고 안부를 챙겨주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만,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질병이나 부상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검사 등을 위해 단기 입원 후 퇴원한 경우 △ 스스로 전혀 움직일 수 없어 장기적인 의료·요양 시설 입소 및 간병이 필요한 ‘외상 환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상서면, 이동세탁차량 ‘뽀송이’ 봉사 전개

### 부안군자원봉사센터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흥귀)는 지난 1일 상서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뽀송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동세탁차량 ‘뽀송이’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세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기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이불과 의류 등의 세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이다.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한 한 홀몸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이불 빨래를 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깨끗하게 세탁해 주고 좋은 향기가 나는 이불을 가져다주어 너무 고맙다”며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게 되어 매우 기뻐다”며



“이동세탁차량의 주차공간 확보와 수도 및 전기 사용에 적극 협조해 주신 상서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선 상서면장은 “우리 주변 이웃들의 행복한 삶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부안군자원봉사센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